



**호원대, 우수 비교과 프로그램 13개 선정 성과 공유**

호원대학교 교육혁신처는 15일 총장실에서 우수 비교과 프로그램 13개를 선정, 시상식을 갖고 우수사례에 대한 성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 비교과 선정은 운영부서에서 추천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공모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7개 부서에서 추천한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상 1개, 최우수상 2개, 우수상 2개, 장려상 8개 프로그램을 시상했다.

이에 대상은 비교과 학습영역에서 교수학습개발센터가 운영한 'H-HELP Co-커리큘럼'이 수상했다.

이 프로그램은 전공교과와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실질적 학습활동 지원으로 학습동기 유발 및 학습역량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22학년도에 개발 운영됐다.

또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진로심리상담센터의 '현직자와 함께하는 지역 Green 진로교육'은 진로역량강화를 위한 고학년 맞춤형 진로실현 활동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 현직자와의 만남 및 실무현장의 체험을 통한 진로로드맵을 구체화 해 직업과 연관된 환경에 대한 관심 및 환경보전의식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어 교수학습개발센터의 '기초학력증진 프로그램'은 신입생과 재학생의 기초학력증진을 위해 사전진단을 바탕으로 개인 맞춤형 기초학습 전문강사와 1:1 학습코치, 온라인 기초학력증진을 실시하고, 사후진단을 통해 프로그램 성과 분석 및 기초학력 향상정도를 분석해 전교습을 위한 자료를 제공한다. /장은성 기자



**기전대, 1차년도 산학협력 성과공유 확산 포럼**

전주기전대학 LINC3.0사업단(단장 조덕현)은 15일 채플관 플립러닝 강의실에서 1차년도 산학협력 성과공유 확산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조덕현 단장을 비롯한 사업참여학과 및 관계부서, 전체 교직원 등 70여 명이 참석해 2022학년도 LINC3.0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2차년도 사업 운영 계획 수립을 위한 구성원 의견수렴 등의 시간을 가졌다.

주요 내용은 △산학협력 교육과정 운영 고도화체계 마련 △구성원 의견수렴을 통한 2차년도 사업 방향 도출 △CC 특화 분야 브랜드 창출을 위한 의견수렴 △공유협업 체계 구축 등이다.

조덕현 단장은 "지난 1년간 학과와 부서에서 수행한 우수 성과를 전체 교직원과 공유하며 2023학년도 LINC3.0 사업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다"며 "산업체와 지역 사회와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2023년에도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협력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중화산1동 해바라기봉사단 사랑의 떡국 전달**

중화산1동 관내 어르신 150여 명을 모시고 떡국 나눔 봉사를 실천한 해바라기봉사단 사랑의 온도가 뜨겁게 오르는 뜻깊은 시간이 15일 펼쳐졌다.

해바라기봉사단(중화산동)은 15일 관내 어르신들의 마음속에 따듯함을 드리기 위해 사랑 담은 봉사활동을 선사하며 종합사회복지관 식당에서 드렸다.

이날 해바라기봉사단(중화산동)은 15일 관내 어르신들의 마음속에 따듯함을 드리기 위해 떡국 나눔 봉사를 준비해, 사랑 담은 봉사활동을 선사하며 종합사회복지관 식당에서 드렸다.

여기에 해바라기봉사단 회원들은 어르신들 집까지 따뜻한 온기가 이어지도록 식료품 꾸러미 150여 개를 마련해 어르신 한시라도 편안하게 수면 취우키도 했다.

박인숙 해바라기봉사단 회장은 "나눔의 온정을 통해 추위와 외로움을 잊고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유은혜 중화산동장은 "관내 어르신들을 위해 사랑을 보여준 해바라기봉사단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함께 이룬 50년 웃고 뛰는 꿈의도시 수송!**

**군산시 수송동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발대식 개최**

군산시 수송동은 15일 초청인사와 자생조직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송동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발대식은 오는 7월 1일이 수송동 창립 50주년이 되는 해로 이를 기념하기 위한 주민한마당 행사 일정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행사준비를 위해 발족한 추진위원회 결의문을 다지는 자리로써 마련됐다.

추진위원회는 수송동 주민자치위원, 통장협의회, 전사누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자생단체 회원 중심으로 사무국 재무국 홍보국 주민참여국, 행사운영국, 안전관리국 등 6개국 20여명으로 구성됐다.

행사에는 수송동장의 경과보고에 이어 5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장으로 추대된 김용호 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초청인사 축사, 추진위원장 소개에 이어 행사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의 최종 피날레로 50주년 캐치프레이즈로 선정된 '함께 이룬 50년! 모두가 웃고 뛰는 꿈의 도시 수송!'이라는 슬로건을 참석자 모두 외치며 성공을 기원했다. 김용호 추진위원장은 "수송동이 50주년을 맞아 행사



를 진행하는 만큼 수송 주민 모두가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한마당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송동은 1973년 '수송동'이라는 명칭으로 개소해 올해로 50년째를 맞고 있으며, 지난 2013년에 4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10년이 지난 오는 5월 20일 수송체육공원에서 5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 할 예정이다. /군산=이재춘기자



**태권도진흥재단, 튀르키예에 도움의 손길 전해**

15일,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응환, 이하 재단)은 최근 강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 돕기에 나서 긴급 구호물품을 전달한다.

현재 강진과 함께 추운 날씨 등 악천후로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에 재단 보유의 태권도 용품과 태권도인들의 기부 물품 가운데 어린이용 겨울 의류 인 방한 점퍼 500벌을 주한튀르키예대사관을 통해 긴급 전달기로 했다.

재단 오응환 이사장은 "50년명의 태권도 등록 인구를 보유하는 등 유럽권 내에서도 태권도와 한류 열기가 강한 튀르키예에 큰 피해가 발생함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라며 "대한민국 태권도 가족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고 빠른 지진 복구를 재단 전 임직원이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태권도진흥재단은 주튀르키예한국문화원과 함께 공립학교 태권도 수업, 문화원 태권도 교실 운영, 시리아 난민캠프 내 태권도 교육 및 용품 지원 등 태권도 해외 활성화 사업을 튀르키예에서 펼쳐오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일자리센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업무협약 체결**

진안군일자리센터(센터장 최영규)와 진안사회적경제지원센터(센터장 한병재)는 15일 진안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유 사무실에서 '고용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알선과 사회적 가치 실현 등 지역 청년 및 신중년의 고용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사회적 경제 기본역량 구축 기업성장·생태계 기반조성 등에 공동 협력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아이템 발굴, 교육 및 정보 교류 △구인·구직 간 일자리 매칭시스템 운영 등 지역민의 실업과 사회적 기여 등 인력난 해소를 위한 취업지원△사회적 기업의 홍보활동 등 지역 인력 채용분위기 확산 및 정착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인력·물적 자원의 상호 교류 △기타 양 기관의 실무협약에 따른 합의 사항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업무협약식에서 진안군일자리센터 최영규 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진안에서 사회적 기업을 비롯한 조합법인 등의 창업 및 인력 채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협력하여 성실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원광대 미대생 수제동화책 제작... 시립도서관 기증**

원광대학교 대학생들이 특별 수제 책제작 재능기부 활동을 펼쳐 지역 도서관에 활기를 불어 넣어 큰 화제다.

익산시립도서관은 원광대학교 미술과 재학생 17명이 총 17종 120점의 동화책을 제작해 시립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에 기증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원광대학교 LINC 3.0 사업단에서 지원받은 산학연 연계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예술적 재능을 살려 삼화와 동화가 융합된 그림책을 제작했다.

기증된 동화책은 시립도서관과 19개 작은도서관에 등록, 어린이와 시민들의 책읽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 대학생들의 재능기부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이 도서관과 지역사회에 큰 반향을 주고 있다. /익산=이재춘기자



**전주시설공단, 시민 수상안전요원 적극 양성**

전주시설공단이 시민 수상안전요원 양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15일 공단에 따르면 최근 전주 덕진수영장에서 진행된 수상안전요원 자격증 시험에 응시한 14명 전원이 자격증을 뒀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덕진수영장에서 구조요수, 구조요법, 응급처치 등 실전 기술을 체계적으로 익혀 왔다.

공단은 이용객들의 요청에 따라 덕진수영장에 전문 자격증반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또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광주 등 다른 지역으로 원정을 내사야 하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영장 1개 레인을 시험검정 레인으로 배정하는 등 시험 장소도 제공했다. /임종은 기자

**덕진소방서, 지진 대형 재난 대비 도시탐색 특별구조훈련**

전주덕진소방서 구조대는 최근 발생한 '튀르키예' 지진과 같은 대규모 재난 상황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도시탐색 특별 구조훈련'을 실시했다.

튀르키예 지역 지진으로 인해 수만 명의 사상자와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하며, 국내 역시 크고 작은 지진이 반복해 발생하고 있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라고만 볼 수는 없다.

이에 전주덕진소방서 구조대가 지진 등 대규모 재난 상황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4일 전주 기차촌 재개발 지역에서 '도시탐색 특별 구조 훈련'을 마련해 실시했다.

이창현 구조 구급팀장은 "국내에서도 2016년 경주지진과 2017년 포항지진과 같은 크고 작은 지진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발생한 튀르키예 지역 지진과 같이 건축물 붕괴와 같은 대형 지진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시탐색 특별구조훈련은 지진과 해일 등으로 인한 건물 붕괴 사고와 같은 대형 재난에 대비한 구조 훈련으로, 첨단 구조장비를 활용한 기술적 인명 탐색 기법 숙달과 붕



괴 건축물의 안정화·굴착·파괴, 신속한 인명구조 역량 강화 등에 중점을 둔 훈련이다.

이날 훈련을 통해 "건축물 붕괴상황을 가정한 인명 탐색 및 구조 인명구조 현장 접근 위한 탐색 및 구조로 개척, 구조물 안정화, 매몰자 영상·음향탐지기 사용 숙달, 중량물 작업용 장비 사용 등 건축물 붕괴 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를 위한 종합적인 훈련" 등이 이뤄졌다. /김영태 기자

**덕진소방서, 중점관리대상 화재안전 시행계획 추진**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김현철)는 대형 복합건축물 가연성 물질 등을 대량으로 저장·취급하는 대상물 다수의 인명피해·사용하는 대상물 등 중점관리대상 56개소에 대한 화재안전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최근 5년(2018년 ~ 2022. 11.)간 전라북도에서 발생한 10,415건의 화재 중 전북소방본부 중점관리대상에서 발생한 화재는 65건으로 약 0.6%에 불과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한 인명피해는 총 21명으로 전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424명의 약 5.0%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전주덕진소방서는 지난해 11월 중점관리대상 선정 심의회를 통해 덕진구 내 대상물 중 화재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56개 대상(대방다점시티 등)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 화재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에 나선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재위험요소 제거 합동 화재안전조사, 취약 중점관리대상 관계자 자율안전점검 실시, 중점관리대상 화재예방 가동순찰, 관리·감독자 중심 체험형 소방안전 교육 추진, 민·관 협업 안전관리 간담회 등 협의체 운영, 중점관리대상 다각적 소방훈련 실시,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대 구성 및 운영' 등이다.

김현철 전주덕진소방서장은 "고층 복합건축물, 공장시설, 판매시설 등 매년 대형화재 취약 대상이 늘어나고 있어 중점관리대상의 선정, 화재의 예방과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점관리대상의 관계자 역시 화재 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로 재난의 예방에 동참해달라"고 전했다. /양은경 기자



**전북은행, 2023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백종일 전북은행장은 전북은행 행사장에서 이선홍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회장을 만나 2023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전달식 자리에는 백종일 은행장, 김영석 사회공헌부장, 이선홍 적십자전북지사 회장, 권영일 적십자전북지사 사무처장, 김용연 회원, 홍보팀장이 참석해 분위기를 한층 띄웠다.

특히 전북은행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생필품 지원, 여성위생용품 지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장학금 사업 등 지역밀착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며, 지역대표은행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백종일 은행장은 "적십자회비 납부를 통해 주변의 이웃들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완산소방서 클린소방 실천 지정 결의대회 실시**

전주완산소방서 대회의실에서는 15일 반부패 청렴 실천 의지 및 청렴 실천을 위한 '클린 소방 실천 지정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마련한 이번 결의대회는 비위발생 취약분야 부조리를 사전에 제거해 부패 없는 클린소방을 구현하고 청렴한 소방실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전주완산소방서장, 소방행정과장, 현장대응단장, 소방공무원 등 약 55명이 한자리에 모여 공직기강 확립 위한 청렴을 결의했다.

김장수 전주완산소방서장은 "청렴은 공직자가 가져야 할 필수 덕목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소방행정을 구현을 위해 전 직원이 청렴실천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양은경 기자